

월요 마임무대

하현관 · 허승민 마임

「 노숙자 」 「 텔레비전 」

「 소시민의 저녁식사 」

시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소시민의 저녁식사



제1회 열린 창작 단막극제

쇼타임 SHOWTIME

불확실한 소문의 세기말. 사소한 일상에 관한 장면연구

작 · 연출/구현철

출연/배진만 · 김수진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 단순해지자 ... 우리...” “ 나도 그러고 싶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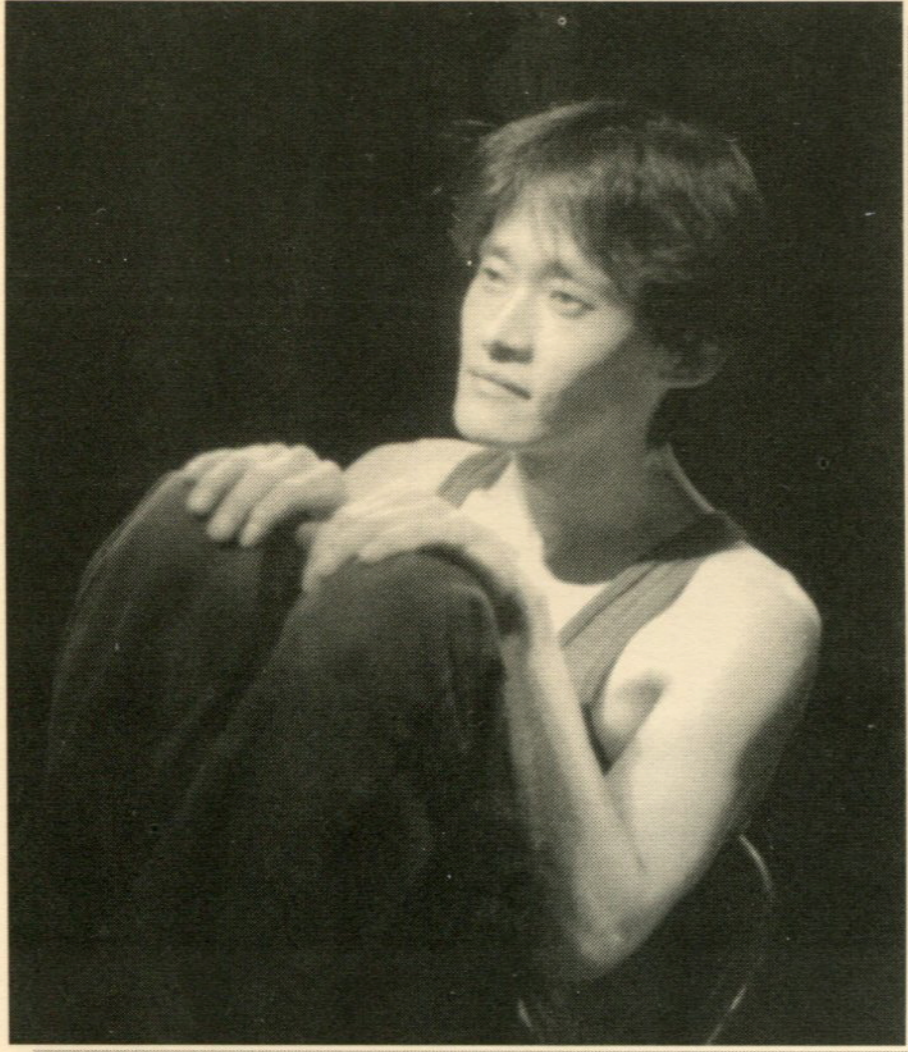
작 · 연출/유재명

출연/김승언 · 김지영



월요 마임무대

하·현·관 마임



하 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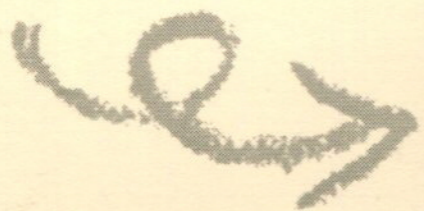
- '90 극단[현장] 입단
- '95 연당소극장 內 극단 [부두 연극단] 입단
- '96. 11. <하현관 무언극 - 대사없는 1막> 공연
- '98. 3. 마임 퍼포먼스 <곰-소리> 공연
- '98. 12. <KIM BO YOANG MOVEMENT 1998> 참가
- '99. 2. <한-일 판토마임 교류전> 참가

/ '97년 부터 20여회 거리마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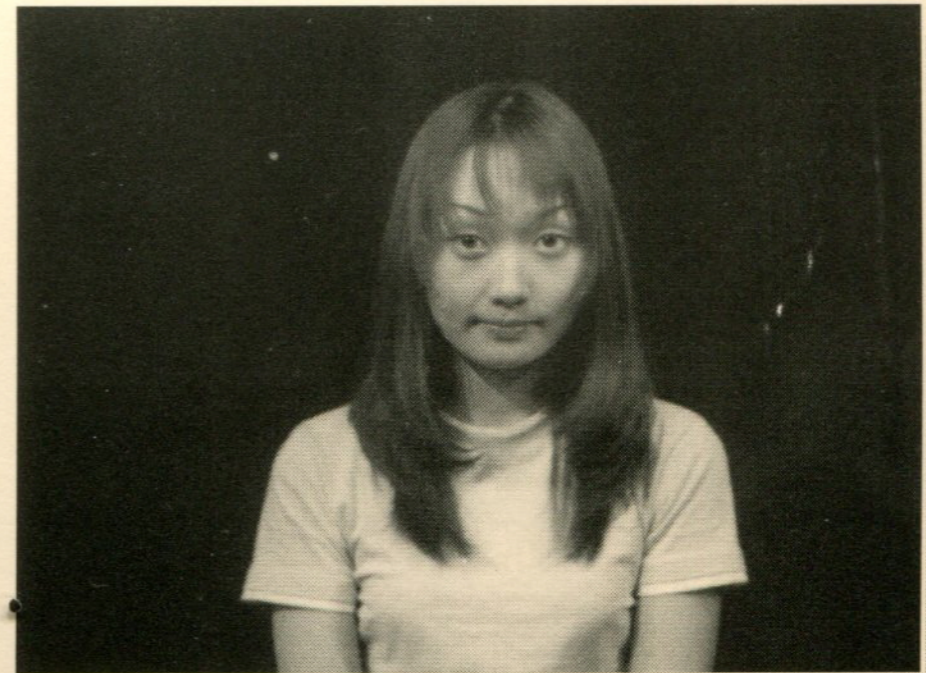
/ 출연작

<엘리펀트 맨>, <자갈치>, <고도를 기다리며>, <진흙>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물고기 축제> 외 10여편 출연.

우정출연



정 화 선



염 지 선

작품해설

▷노숙자

벤치가 놓여있는 한 구석. 갈 곳 없고 배고픈 한 남자와 사랑의 기쁨에 찬 한 여인이 벤치에서 만난다. 처음엔 서로 전혀 관심없는 남남이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내용.

▷텔레비전

T.V에 중독되어 밤새도록 리모콘을 누르던 남자가 잠이 든다. 꿈에서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선물을 받는다. 리모콘으로 조종되는 로봇 인형을 받고 재미있게 논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터는 로봇이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국 남자는 로봇이 쏜 총에 맞아 죽는 순간 잠이 깬다. 그런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월요 마임무대

허 · 승 · 민 마임



허 승 민

72년 부산 출생
전문공연자집단 <퍼포먼스 파크> 대표

『마스터 빌더 2139』

『소리이야기 퍼포먼스』

95년부터 100여회의 거리마임 공연

▷시작 · 지금알고 있는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소시민의 저녁식사

작품해설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누군가는 마임을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대에서 연기자의 마음이 움직임을 통해 보여지고 그것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마임이다.

이 작품들은 마임이라는 자유롭고도 풍성한 매체를 이용해서 현실과 환상,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며, 평소 스스로에게서 관찰하지 못했거나 외면 당했던 또 하나의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바쁜 일상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탈에 대한 욕망, 자신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바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뒤흔드는 헛된 욕심일수 있기에, 그런 욕망들은 여러 관계들 속에서 왜곡되고, 감춰져서 나타난다.

만약에 자신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혹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꼼꼼히 들여다 볼 일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 음악 작업을 해주신 J·B club 이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열린 창작 단막극제

쇼타임 SHOWTIME



작 · 연출 / 구 현 철

연출의 변

불확실한 소문으로 떠도는
밀레니엄에 대한 맹신
그것이 1999년의 새로운 종교다.
우리는 게걸스런 쇼를 지켜보면서 점점 일상에 무관심해진다.

일상적 상상력의 회복과
거기에 맞서는 연극적 상상력의 증폭
그것이 1999년 나의 작업이다.
만만찮은 짓이지만
세상과 나는, 아직도 화해라는 단어를 사이에 두지 못한다.

나는 사소하지만 우리는 사소하지 않다.
그래.
그것이 중요하다.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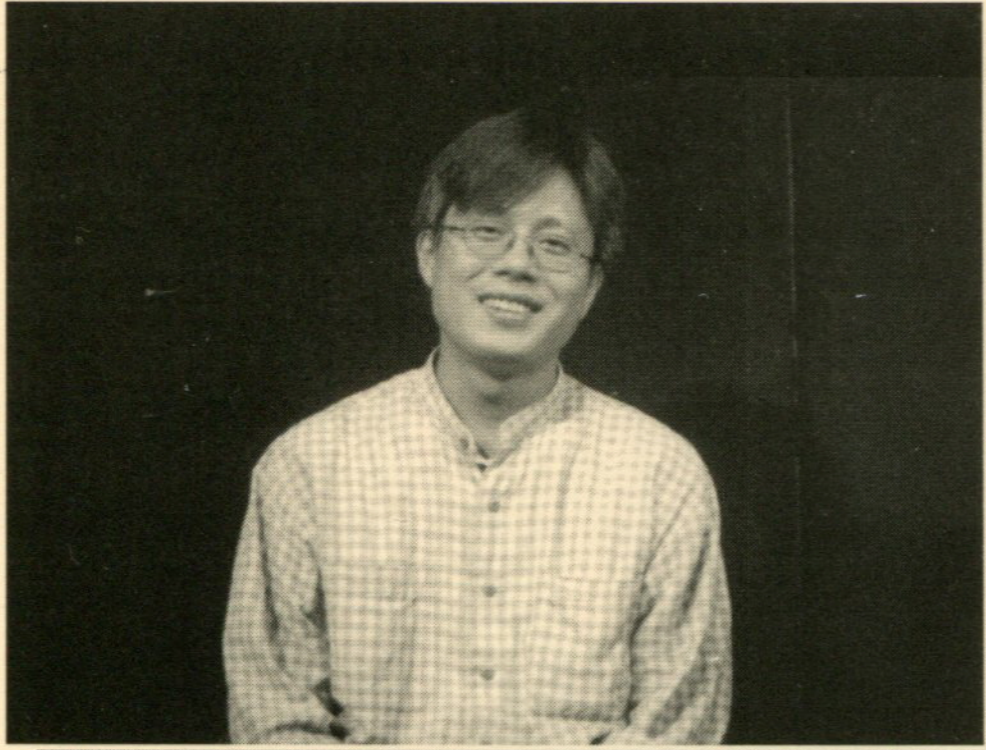
불확실한 소문의 세기말. 사소한 일상에 관한 장면연구

자신만의 은밀한 유희를 위해 매주 여관방을 찾는 '은행원' 과 같은 여관방을 다른 시간에 공유하는 '폰팅걸' 이들에게 현실은 허위의 욕망을 낭게하는 게걸스런 쇼와 같다. 사소한 일상들을 문화라는 상품으로 포장하는 고도자본주의의 현실은 '은행원' 과 '폰팅걸' 서로의 단절감만을 상기 기킨다. 소외받은 존재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지만 끝내 이들은 '관계' 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의 화려함에 파묻힌 구질 구질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만의 세계를 위해 찾은 여관방은 오히려 일상적 삶의 공간이다. 가장 사적인 이야기가 다른 각도에서는 가장 무서운 보편성을 띠게되며 이들의 하찮은 일상을 드러내는 행위는 섬뜩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CAST

쇼타임SHOW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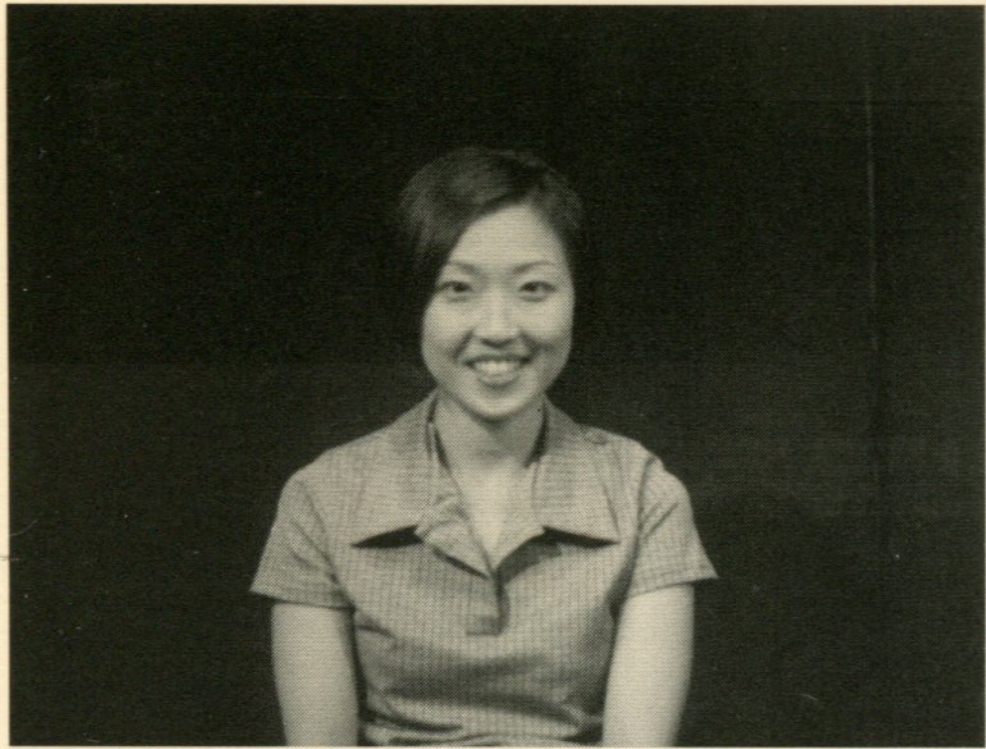


은행원 / 배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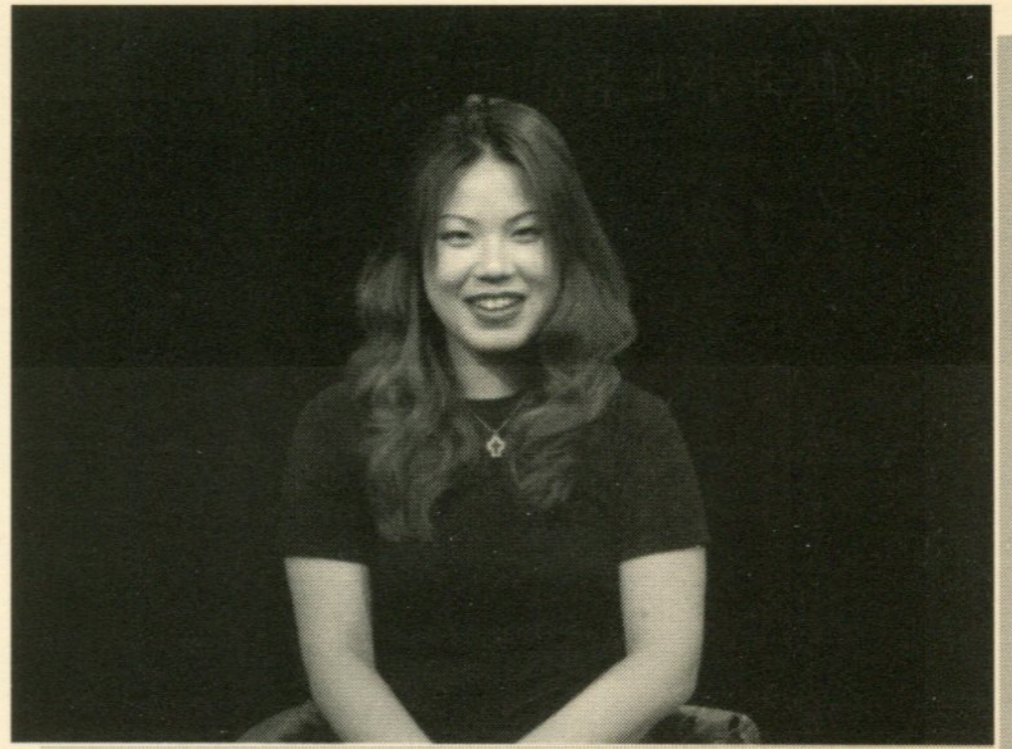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상우 / 김승연



폰팅걸 / 김수진



미래 / 김지영

STAFF



무대감독 / 서석현



『쇼타임』
조연출 / 노미경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조연출 / 임정



음향 / 권미혜

제1회 열린 창작 단막극제

꽃들은 모두...어디로 갔나...



작 · 연출 / 유재명

연출의 변

<첫>이 무섭기는 무섭다.

공연이 올라가면 이 불면증은 가서지려나...

“단순해지자...우리...”, “나도 그러고 싶어...”

극중 제일 마음이 가는 대사이다.

어떤... 양극단.

그 사이에서 서성대고 있는 그들, 나.

우리에게 젊음의 미숙함이란 선물이 있다?

누가 내 불기짝이라도 시원하게 갈겨주었으면, 어느쪽이라도 좋으니 짐승 몰 듯 몰아주었으면 하는 의지<依支>의 마음들.

역시나 후회한다. 많은 것들을.

아...나도 어디론가 가야 할텐데...

작품해설

무명 연극배우 '상우'와 삶에 지쳐버려 허덕대는 '미래', 이들도 다른 모든 연인들처럼 그들의 만남이 마치 예정되었던 것,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어쩌면 사랑이 시작되기전부터 그들은 이미 오래도록 사랑해왔는지도 모른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나기 의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이 존재해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그들만의 특별하고 위대한(?) 사랑은 상우가 “...미래에는 니가 내 애인이 될 수 있겠다...생각했어”라고 첫 만남때의 느낌을 말하는 것처럼 현실과는 사뭇 다른 길, 운명을 가장하고 나타나선 현실로부터 쫓겨 달아날 수 밖에 없다. 그 현실이 운명을 대체해 버린 지금...

이 극은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 그들이 낯선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상의 풍경들을 같이 밤을 새며 보자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일주일간의 자루한 삶을 피해 일요일 오후부터 여관을 찾아든 그들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은 오해들로 서로의 상처를 할퀴기도하며 어설픈 죽음의 유희를 즐기기도, 내재된 일탈의 욕구를 해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곳이 그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까?

불투명한 미래와 사랑의 모든 행위를 일상으로 만들어 버린 현실, 억눌린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구속처는 아닐까?

밤새 거리를 휩쓴 태풍이 서서히 물러간 월요일 새벽, 시간이 그들의 삶을 스쳐 지나가 듯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상우와 미래는 여관방을 따로 나선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에 서성대고 있는, 젊음의 미숙함이란 선물을 안아든 채, 단순해지고 싶은(어느 쪽으로든), 그러고 싶은(어느 쪽으로든) 상우와 미래는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갔을까...